국 어

<총 평>

유형 / 연도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2019년	4(▽2)	9(▲2)	6(▲1)	1(▽1)
2018년	6	7	5	2

2019년 국가직 9급 시험은 2018년 시험과 비교해서 문법/규범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된 반면, 독해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진 특징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독해 실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는 최근 2~3년간 계속해서 이어지는 출제경향에 해당합니다.

문제 유형은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법/규범은 두 문제가 줄어들어 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비문학/독해는 2문제가 늘어나 9문제가 출제되었고, 문학은 1문제가 늘어나 6문제가 출제되어 총 15개의 지문이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간 배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어휘/한자의 경우 한자 성어 1문제만 출제되어 어휘/한자 문제로 인한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법/규범의 경우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높임법 등 문법 전 범위에 걸쳐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특이한 점은 예년과 달리 규범 관련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보통'에 해당하며, 평소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실히 학습해 온 수험생들의 경우 큰 어려움 없이 80점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선은 85~90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서울시 시험을 제외한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는 계속해서 독해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므로 다가올 지방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문법/규범뿐만 아니라 독해/문학 문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 음운론, 형태론, 의미론, 한글 맞춤법 등 전 범위에 걸쳐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 및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 단기간에 실력을 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 유형별(추론하기, 서술방식 찾기 등)로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문학**의 경우 매일 2~3문제씩 풀고 작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시와 소설을 골고루 학습하고 고전 문학 작품의 경우 운문뿐만 아니라 산문 작품들도 함께 학습하도록 합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방심할 수 없으므로 매일 20~30분씩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자의 독음이 제시되지 않는 추세이므로 한자의 음과 훈까지 확실히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남은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4. 7.

기미진 올림

문 1. 밑줄 친 단어의 품사를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 ○ 쌍둥이도 서로 성격이 ㉠ 다른 법이다.
> ○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 크지 못한다.
> ○ 남부 지방에 홍수가 ㉢ 나서 많은 수재민이 생겼다.
> ○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 허튼 말은 하지 않는다.
> ○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 아닐까?

① ㉠, ㉡
② ㉡, ㉢
③ ㉢, ㉣
④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품사의 구별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형용사] 제시 문장의 '다른'은 '(성격이) 다르다'와 같이 서술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형용사입니다. 참고로 '다른'은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일 때도 있고,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늬딴)'의 뜻으로 쓰이는 관형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 [동사] '크다'가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사람이 자라서 어른이 되다 / 수준이나 지위 따위가 높은 상태가 되다' 등의 의미일 때는 동사입니다. 참고로 '크다'가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등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입니다.
㉢ [동사] '나다'는 '홍수, 장마 따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다'를 뜻하는 동사입니다. 종결어미 '-ㄴ다'와 결합하여 '(홍수가) 난다'와 같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동사입니다.
㉣ [관형사] '허튼'은 '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을 뜻하는 관형사입니다.
㉤ [형용사] '아니다'는 (('의문형'으로 쓰여))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사실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 ㉡, ㉢입니다.

문 2. 다음의 여러 조건에 가장 잘 맞는 토론 논제는?

> ○ 긍정 평서문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 찬성이나 반대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
③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④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토론과 토의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징병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1) '~해야 한다'로 끝나는 긍정 평서문이고, (2) '징병제도'에 대한 찬성입장으로 반대와의 대립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3) 쟁점은 '징병제도' 하나이고, (4) 정서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토론 논제입니다.
② [X] '정보통신망법을 개선할 수는 없다.'는 부정 평서문이므로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③ [X] '야만적인 두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야만적인'이라는 어느 한 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정서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네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④ [X]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을 개혁해야 한다.'는 '내신 제도'와 '논술 시험' 두 가지 쟁점을 다루고 있으므로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문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을 설명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드높이 솟은 이 망루는 하늘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습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
>
> – 이강백, 「파수꾼」에서 –

①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이다.
②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한다.
③ 해설자는 무대 위의 아버지를 소개한다.
④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나리오, 희곡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이강백의 <파수꾼>은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과 진실에 대한 열망'을 주제로 1970년대의 정치 현실을 우의적 방식으로 풍자·비판한 희곡입니다.

[줄거리]

>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에서 파수꾼은 끊임없이 이리 떼의 내습을 감시한다. 파수꾼이 양철북을 두드리면 즉시 대피하기 위해 마을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나날의 연속이다. 파수꾼 '다'는 선임 파수꾼 '가'의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는 외침과 양철북 소리에 항상 긴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다'는 이리 떼를 본 적은 없다. 그 역시도 신호밖에 듣지 못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 다리가 부러지고, 아이는 우물에 빠져 죽는 등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 어느 날 저녁, '다'는 파수꾼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두려움을 안고 망루에 올라가 파수꾼 '가'가 이리 떼라고 외치는 것의 정체는 흰 구름이라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촌장에게 알린다. 촌장은 '다'를 찾아와 이리 떼가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촌장은 이리 떼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한 사람들의 긴장이 마을의 질서를 유지시키고 단결된 역량을 모아 나름대로의 번영을 지속시켰다는 말로 '다'를 설득한다. 촌장의 설득에 '다'는 망루에 올라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흥분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일상의 업무로 돌아왔을 때 멀리 파수꾼 '다'의 외침이 들린다.

① [O]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떼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에서 공간적 배경은 망루가 세워져 있는 황야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하늘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황혼, 초승달이 뜬 밤, 그리고 아침으로 변할 겁니다"에서 시간적 배경은 연극의 진행에 따라 변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저기 위를 바라보십시오.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와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합니다"를 통해 아버지가 아닌 무대 위의 등장인물인 파수꾼을 소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④ [O] "파수꾼이 앉아 있습니다. ~ 그는 언제나 시커먼 그림자로만 보입니다"에서 파수꾼의 얼굴은 분명하게 알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4.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
> "너무 긴장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① 수빈은 정아의 말에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수빈은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③ 수빈은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다.
④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말하기와 듣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O] 수빈은 정아의 말에 "정말?",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라고 하며 자신이 주의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② [O] 수빈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 봐."라고 하며 정아가 계속 말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③ [O] 수빈은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구나.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정아 씨가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라고 하며 정아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정아 스스로 정리하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④ [X] 제시문에서 수빈은 정아가 처음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 긴장을 많이 해서 팀장님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것이라며 정아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있을 뿐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5.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때, '부엌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 유형으로 옳은 것은?

	변동 전		변동 후
㉠	XaY	→	XbY(교체)
㉡	XY	→	XaY(첨가)
㉢	XabY	→	XcY(축약)
㉣	XaY	→	XY(탈락)

① ㉠, ㉡
② ㉠, ㉣
③ ㉡, ㉢
④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음운의 변동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부엌일'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으로 [부억일]이 되고, 'ㄴ'첨가(첨가)가 일어나서 [부억닐]이 된 후 다시 비음화(교체)가 일어나서[부엉닐]이 됩니다. 따라서 '부엌일'에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유형은 ㉠ 교체와 ㉡ 첨가입니다.

문 6.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회자: 학교 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를 주제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말씀해 주시죠.

찬성 측: 친구가 학교 폭력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학교 폭력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행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폭력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다음으로 반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죠.

반대 측: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이므로 외부에서 규제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 측부터 찬성 측에 대해 반론해 주시지요.

반대 측: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방관자라고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 측: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체하고 방관할 것입니다. 결국 이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도덕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정의에 근거한 시민의 고발정신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①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말하기와 듣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X] 찬성 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우연히 폭력을 목격했을 경우, 자신의 친구로부터 폭력에 관련된 소문을 접했을 경우' 등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는 입장은 반대 측입니다.
② [X] 찬성 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X] 반대 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한데, 방관자의 범위부터 규정하기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와 같이 처벌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찬성 측이 '불의를 방관한 행위에 대해 사회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사람들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의를 모른 체하고 방관할 것입니다.'와 같이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④ [O] 반대 측은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와 같이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7.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한국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학이 있다. 풍자와 해학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을(를) 통해 드러난다. (㉠)은(는) '있어야 할 것'으로 행세해 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이고,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이다.

	㉠	㉡	㉢
①	골계(滑稽)	해학(諧謔)	풍자(諷刺)
②	해학(諧謔)	풍자(諷刺)	골계(滑稽)
③	풍자(諷刺)	해학(諧謔)	골계(滑稽)
④	골계(滑稽)	풍자(諷刺)	해학(諧謔)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문학의 미적 범주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④ [O] ㉠ 앞에서 풍자와 해학이 ㉠을 통해 드러난다고 하고 있으므로 ㉠에는 '골계'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은 있어야 할 것을 깨뜨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문학 작품 따위에서,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웃으면서 씀.'을 의미하는 '풍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은 있는 것이 지닌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해학'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 8. 다음 글에서 <보기>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보기>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

철학자 헤겔이 주장했듯이, 삶을 인도하는 원천이자 권위의 시금석으로서의 종교를 뉴스가 대체할 때 사회는 근대화된다. 선진 경제에서 뉴스는 이제 최소한 예전에 신앙이 누리던 것과 동등한 권력의 지위를 차지한다. 뉴스 타전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 (㉠) 뉴스는 우리가 한때 신앙심을 품었을 때와 똑같은 공손한 마음을 간직하고 접근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 우리 역시 뉴스에서 계시를 얻기 바란다. (㉢)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 알기를 바라고, 고통을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존재의 이치가 펼쳐지는 광경을 이해하길 희망한다. (㉣) 그리고 이 의식에 참여하길 거부하는 경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① ㉠ ② ㉡
③ ㉢ ④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아침기도는 간략한 아침 뉴스로, 저녁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로 바뀌었다.'는 아침과 저녁, 즉 시간에 따른 구분을 의미합니다. ㉠의 앞에서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문 9.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헌 먼덕[1] 숙여 쓰고 축 없는 짚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 풍채 적은 형용에 ㉠ 개 짖을 뿐이로다
>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었으랴
> 북창(北窓)을 비겨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 무정한 ㉡ 대승(戴勝)[2]은 이내 한을 돋우도다
> 종조(終朝) 추창(惆悵)[3]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나다
>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에서 —

※ 1) 먼덕: 짚으로 만든 모자
2) 대승(戴勝): 오디새
3) 추창(惆悵): 슬퍼하는 모습

① ㉠은 실재하는 존재물이고, ㉡은 상상적 허구물이다.
② ㉠은 화자의 절망을 나타내고, ㉡은 화자의 희망을 나타낸다.
③ ㉠은 화자의 내면을 상징하고, ㉡은 화자의 외양을 상징한다.
④ ㉠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가사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누항사(陋巷詞)>는 조선 광해군 3년(1611)에 박인로가 지은 가사 작품입니다. 경기도 용진에 은거하고 있을 때 이덕형이 찾아와 사는 형편을 묻자 작가가 이에 화답하는 뜻으로 지은 가사로, 자연을 벗 삼아 안빈낙도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계집≫에 실려 전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사대부의 현실을 그린 작품으로, 제시문은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집의 소를 빌리러 갔다가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입니다.
[현대어 풀이-제시문(밑줄)]

> ▶본사 4 -인인수모(농우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하고 돌아옴)
> "공짜로나 값을 치르거나 해서 줄 만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넛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퀑을 구슬같은 기름이 끓어 오르게 구워내고, 갓 익은 삼해주를 취하도록 권하였거든, 이러한 고마움을 어찌 아니 갚겠는가? 내일 소를 빌려 주마 하고 큰 언약을 하였거든, 약속을 어김이 미안하니 말씀하기 어렵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설마 어찌할까? 헌 갓을 숙여 쓰고, 축이 없는 짚신에 맥없이 물러나오니 풍채 작은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 ▶본사5 -종조추창(매정한 세태를 한탄하고 밭갈기를 포기함)
> 작고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워 있으랴? 북쪽 창문에 기대어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내 원한을 재촉한다. 아침이 마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부들의 노래도 흥이 없이 들린다. 세상 인정을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아까운 저 쟁기는 볏의 빔도 좋구나! 가시가 엉긴 묵은 밭도 쉽게 갈련마는, 텅 빈 집 벽 가운데 쓸데 없이 걸렸구나! 봄갈이도 거의 지났다. 팽개쳐 던져 두자.

① [X] ㉠과 ㉡은 모두 실재하는 존재물입니다.
② [X] ㉠은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므로 화자의 절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은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희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③ [X] ㉠은 화자의 외양과 관련되어 있으며, ㉡은 화자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④ [O] ㉠은 화자의 '풍채 적은 형용'을 보고 짖고 있으므로 화자의 초라함을 부각시키고, ㉡은 가난하여 농사 짓기 어려운 화자의 한을 돋우는 존재이므로 화자의 수심을 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 10. 화자의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 성어는?

> 미인이 잠에서 깨어 새 단장을 하는데
> 향기로운 비단, 보배 띠에 원앙이 수놓였네
> 겹발을 비스듬히 걷으니 비취새가 보이는데
> 게으르게 은 아쟁을 안고 봉황곡을 연주하네
> 금 재갈, 꾸민 안장은 어디로 떠났는가?
> 다정한 앵무새는 창가에서 지저귀네
> 풀섶에 놀던 나비는 뜰 밖으로 사라지고
> 꽃잎에 가리운 거미줄은 난간 너머에서 춤추네
> 뉘 집의 연못가에서 풍악 소리 울리는가?
> 달빛은 금 술잔에 담긴 좋은 술을 비추네
>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루는데
>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에 눈물이 흥건하네
>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에서 —

① 琴瑟之樂
② 輾轉不寐
③ 錦衣夜行
④ 麥秀之嘆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허난설헌의 <사시사(四時詞)>는 사계절의 풍경 속에서 여성 화자가 느끼는 고독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한시(7언 고시)로, 춘사(春詞), 하사(夏詞), 추사(秋詞), 동사(冬詞)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은 춘사(春詞)에 해당하며, 화자는 임이 오기를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외로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① [X] 琴瑟之樂(거문고 금, 큰 거문고 슬, ~의 지, 즐길 락)은 '부부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② [O] 輾轉不寐(구를 전, 구를 전, 아닐 불, 잠잘 매)는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므로 화자의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輾轉反側(구를 전, 구를 전, 돌이킬 반, 곁 측)]
③ [X] 錦衣夜行(비단 금, 옷 의, 밤 야, 다닐 행)은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다닌다'는 뜻으로, 자랑삼아 하지 않으면 생색이 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④ [X] 麥秀之嘆(보리 맥, 빼어날 수, ~의 지, 탄식할 탄)은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문 11.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국어의 높임법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법,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등이 있다. 이러한 높임 표현은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　　)의 경우 대화의 상대,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다.

①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
②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③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④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높임법의 종류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이 사용되고 대화의 상대를 높인 표현을 찾아야 합니다.
① [X]
- 주체 높임[O] 서술어의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조사 '께서'와 명사 '댁' 그리고 '들어가셨다'에 쓰인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객체 높임[O] 서술어의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특수 어휘 '모시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대 높임(높임)[X] '대화의 상대를 높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로 실현되는데 '들어가셨다'의 '-다'는 상대 높임법 중 상대편을 아주 낮추는 종결형인 해라체입니다.

② [X]
- 주체 높임[X] 서술어의 주체인 '저(제)'를 높인 표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객체 높임[O] 서술어의 객체인 '어머니'를 높인 표현은 조사 '께'와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인 '드리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대 높임(높임)[O] 서술어 '될까요(되-+-ㄹ까+요)'는 상대편을 보통으로 높이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형인 해요체가 쓰였습니다.

③ [O]
- 주체 높임[O]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은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조사 '께서'와 '하셨습니다'에 쓰인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객체 높임[O]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은 객체인 '아주머니'를 높이는 조사 '께'와 객체를 높이는 특수 어휘인 '드리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상대 높임(높임)[O] 서술어 '하셨습니다'에 쓰인 종결 어미 '-습니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습니다'는 상대 높임법 중 높임말인 하십시오체의 어미로,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④ [X]
- 주체 높임[O] 서술어의 주체인 '주민 여러분'을 높인 표현은 조사 '께서'와 '주시다'에 쓰인 높임 선어말 어미 '-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객체 높임[X] 서술어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상대 높임(높임)[O] 서술어 '바랍니다'에 쓰인 '-ㅂ니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ㅂ니다'는 하십시오할 자리에 쓰여,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 어미입니다.

문 12. 다음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학(御用學)의 울타리며
>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
>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
>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釀造)한다.
>
>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
> 하여,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
>
>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 –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에서 –

① 직설적인 어조로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②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③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시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O]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등에서 직설적인 어조로써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과 거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② [X] "하여, 전통은 궁궐안의 상전이 되고 / 조작된 권위는 주위를 침식한다. //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년 울타리며 / 죽 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 넣라."를 통해 화자는 고전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한다는 ②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O] 1연에서 화자는 '국경, 탑, 어용학의 울타리' 등은 바다로 몰아넣고, 2연에서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것(국경, 탑, 어용학의 울타리)과 자연적인 것(하늘을 흐르는 날새)을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O] '죽 가래'는 '넉가래'를 의미합니다. '넉가래'는 곡식이나 눈 따위를 한곳으로 밀어 모으는 데 쓰는 기구로 넓적한 나무 판에 긴 자루를 달았습니다. 따라서 '죽 가래'를 이용해서 바다로 몰아넣으라는 표현은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13. ㉠ ~ ㉤ 중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은?

>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군노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우는데, ㉠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한때나마 빈방살이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청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원성이 되니 ㉡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인들 아니 상할 것인가. 임 그리워 서러운 마음 밥맛없어 밥 못 먹고 불안한 잠자리에 잠 못 자고 도련님 생각으로 상처가 쌓여 피골이 상접하고 양기가 쇠진하여 진양조 울음이 되어 노래를 부른다. 갈까 보다 갈까 보다, 임을 따라 갈까 보다. 천 리라도 갈까 보다. 만 리라도 갈까 보다. 바람도 쉬어 넘고 수진이 날진이 해동청 보라매도 쉬어 넘는 높은 고개 동선령 고개라도 임이 와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아니 쉬고 달려가리. ㉢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하는가, 무정하여 아주 잊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임을 사랑하는가? ㉣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석이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봄눈 녹듯 온몸에 맥이 탁 풀렸다.
>
> – 작자 미상, 「춘향전」에서 –

① ㉠ ② ㉡
③ ㉢ ④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고전 소설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작자 미상의 <춘향전(春香傳)>은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하층민의 신분 상승의 욕구 등을 주제로 한 판소리 소설입니다. 제시문은, 춘향을 데려오라는 변 사또의 명을 받아 사령과 관노들이 춘향의 집으로 간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가 직접 작품 속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판단 및 주장, 느낌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②, ④ [O] ㉠, ㉡, ㉣은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납니다.
③ [X] ㉢은 춘향이 도련님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내용으로, 여기에 서술자의 개입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을 엿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몫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밴 것을 차마?
>
> 이때에 누구의 입에선가, 때레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욱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
>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간난이 할아버지 턱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
> "아즈반이웨다레"
>
> 하는 것은 동장네 절가였다.
>
> – 황순원, 「목넘이 마을의 개」에서 –

①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다.
② 신둥이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
③ 간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다.
④ 동장네 절가는 간난이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황순원의 <목넘이 마을의 개>는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주제로 한 단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는 개 '신둥이'는 일제의 모진 수탈과 압박을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가는 우리 민족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① [O] 집단적으로 몽둥이를 들고 신둥이를 때려잡으려는 동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② [O]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를 통해 신둥이의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③ [O]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밴 것을 차마?"를 통해 간난이 할아버지에게서 생명에 대한 외경(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④ [X] 동장네 절가는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간난이 할아버지 턱밑으로 디미는 얼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행동에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 15.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 (가)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부인의 상(喪)을 당하였다. 부윤공의 부인 이 씨가 우연히 언문 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 하고 꾸짖었다.
>
> (나) 전기수: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과 같은 전기소설이었다. …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 가장 재미있고 긴요하여 매우 들을 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요전법(돈을 요구하는 법)'이라 한다.

①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였다.
②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다.
③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다.
④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추론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전기수(傳奇叟)'는 예전에,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사람을 말합니다.
① [O] (가)에서, 정경부인의 상중에 부윤공의 부인이 언문 소설을 소리 나게 읽자 찬성공이 '상중에 있으면서 예의에 어긋난 책을 소리 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는가'라고 꾸짖는 데서 상층 남성들이 상중의 예법에 대해 매우 엄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가)에서 이 씨가 혼자 언문 소설을 소리 내어 읽었다고 하고 있으므로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 내어 읽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나)를 통해 '전기수'와 같이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④ [O] (나)에서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언문 소설을 읽었는데 ~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를 통해 상층이 아닌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6. 다음 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으며,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파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 운동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
>
> 또한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성악이 아닌 기악만으로도 음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교향곡의 기본을 이루는 소나타 형식이 완성되었다. 특히 옛 그리스나 로마 때처럼 보다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 보자고 주장하였기에 '옛것에서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청정하고 우아하며 흐림 없음,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다름으로서의 고전'을 모두 지향하게 되었다.
>
>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고전파 음악이 서양 전통 음악 전체를 대표하게 된 것은 고전파 음악이 이룩한 역사적인 성과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고전 음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전파 음악의 성격과 특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①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힌다.
② 고전파 음악의 음악가를 예시하여 이해를 돕는다.
③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의 분리에 있음을 강조한다.
④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글쓰기의 과정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① [O] 첫째 문단의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 "즉 '신'보다는 '사람'을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굳은 결의를 보여 준 것이다."와 셋째 문단의 "이렇듯 역사적으로 고전파 음악은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의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를 통해 고전파 음악이 지닌 음악사적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② [O] 둘째 문단의 "이 시기에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곡가들이 배출되기도 하였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③ [X] 첫째 문단의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하였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④ [O] 첫째 문단에서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라고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문 17.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 (가)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짓는다.
>
> (나)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

①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②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
③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나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관점·태도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① [O] (가)에서는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와 다름을 알 수 있고, 과학적 연구가 경험적 자료에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실용적 기술 개발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 토대를 둠을 알 수 있습니다.
② [X] (가)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 감각이 보여 주는 세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라고 하고 있으며, (나)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합리론적 사고를 우선하여야 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③ [X](나)에서는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 연구는 오히려 경험론보다 합리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④ [X] (나)에서는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므로 경험적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각에 대한 신뢰는 분야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8.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믿기 어렵겠지만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젊은 청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닮은꼴이다. 이사한다고 짐을 내려놓게 되면 주방 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이다. 미국에서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
>
> 남자들이 군에 가 훈련을 받을 때 비라도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제일 많이 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묻히는 장면은 정겨울 수밖에 없다. 프로 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음식이 맞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이 아닐까?
>
>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겐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다.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①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② 자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③ 자장면과 피자는 값이 싸면서도 기분 전환이 되는 음식이다.
④ 자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내용 일치 여부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① [O] 첫째 문단의 "자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갑자기 아이들의 친구들이 많이 몰려왔을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한 음식이다"를 통해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셋째 문단의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O] 셋째 문단의 "외식을 하기엔 부담되고 한번쯤 식단을 바꾸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중국식 자장면이나 이탈리아식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겐 안성맞춤이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④ [X] 셋째 문단의 "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집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이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를 통해 틀린 선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 19.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통해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하는 등의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쪽은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 등으로 구분된다.

① '가을걷이'와 '추수'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②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③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안면'의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④ '겨레'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어의 의미 변화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O] '가을걷이'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임. =추수'의 의미이므로 '가을걷이'와 '추수'는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② [X] '말미'는 '일정한 직업이나 일 따위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을 뜻하는 말이며 '휴가'는 '직장·학교·군대 따위의 단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또는 그런 겨를'을 뜻합니다. 서로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이므로 동의어의 경쟁 또는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③ [O] 동의어의 예로 옳은 선지입니다.
④ [O] 동의어의 예로 옳은 선지입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예컨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에서 해충 구제용으로 널리 사용됨으로써 농업 생산량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한 디디티(DDT)는 유기 염소계 살충제의 대명사이다.
> (나) 그렇지만 이 유기 염소계 살충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에서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디디티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게다가 디디티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 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 버려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 (다) 디디티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디디티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그래서 디디티에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디디티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디디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의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디디티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기 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
> (라) 이와 같이 디디티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 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인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①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② (나)는 디디티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③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④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단어 및 어구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① [O] (가)는 중심 화제를 소개하고, 핵심어인 '디디티'를 통해 지속성 농약이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② [O] '인과 분석'이란 어떠한 사건이 왜 일어나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나)에서는 디디티의 특성 때문에(원인) 디디티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결과)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③ [X] (다)는 디디티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디디티의 사용이 금지된 예를 들고 있을 뿐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④ [O]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 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 youtu.be/0ORfvstCC6g